

24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임금의 팔도에 ㉠ 공문을 내려 길동을 잡아들이도록 어명을 내렸지만, 길동의 조화는 갈수록 무궁해졌다. 서울의 큰길에 혹은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각 고을에 미리 통고해 놓고는 쌍가마를 타고 왕래하기도 하며, 혹은 어사로 꾸며 탐관오리의 목을 자르고 임금에게 보고하되 임시 어사 홍길동이 올리는 ㉡ 공문이라 했다. 이에 임금은 더욱 진노했다.

“이놈이 각 도에 다니며 이런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임금이 삼정승과 육판서를 모아 놓고 의논을 하는 중에도 연이어 ㉢ 장계가 올라왔다. 모두 다 팔도에서 홍길동이 장난한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이 차례대로 보고는 크게 근심하여 주위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이놈이 아마 사람은 아니고 귀신인 것 같소. 조신 중에서 누가 그 근본을 짐작할 수 있겠소?”

한 사람이 나와서 아뢰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야무개의 서자요, 병조좌랑 홍인형의 서제이오니, 이제 그 부자를 잡아와 친히 문초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줄 아옵니다.”

임금이 더욱 화를 내었다.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는가?”

하고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

이리하여 홍야무개의 여금부에 가두고, 먼저 인형을 잡아들여 임금이 몸소 문초를 했다. 임금이 진노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제라는데, 어찌하여 막지 않고 그냥 두어 국가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하느냐? 내가 만일 잡아들이지 않으면 네 부자의 충효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빨리 잡아들여 나라에 변이 없게 하라.”

인형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의 천한 아우가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지 몇 년이나 지났으며, 그 생사를 알지 못하여 신의 늙은 아버지는 그 때문에 신병이 위중한 나머지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동이 착하지 못하여 성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었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자비로운 은덕을 내려 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시와 집에 돌아가 조리하게 하시면, 신이 죽음으로써 맹서하건대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면할까 하옵니다.”

임금이 다 듣고 감동하여 즉시 홍야무개를 사면하고, 인형에게 경상감사를 제수하면서 말했다.

“경이 만일 길동을 잡지 못하면 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볼 것이니라. 일 년 기한을 주니 그 안에 잡아들이도록 하라.”

인형이 수없이 절하며 감사하고 임금께 하직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로 경상 감사로 부임해서는 각 고을에 ㉣ 밭을 붙였다.

(중략)

㉦ 감사는 이 밭을 각 고을에 붙인 뒤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귀를 탄 소년 하나가 하인 수십 명을 거

느리고 감영문 밖에 와 뵈기를 청했다.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길동인지라, 기쁘고도 놀라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길동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네가 한 번 집을 떠난 뒤 생사를 알 수 없어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 너는 갖가지로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니,

[B] 무슨 마음으로 불충 불효를 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하지 못할 죄를 짓느냐? 이 때문에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도록 하셨다. 이는 피치 못할 죄이니 너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왕명을 받아라.”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부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으리까? 대감께서 일찍이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은 말해 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이 몸을 결박하시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면서 ㉧ 공문을 쓴 다음, 길동의 목에 칼을 채우고 발에 차꼬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그리고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호송하게 한 뒤, 주야로 감질의 길을 가도록 시켜 올려 보냈다. 각 고을 백성들은 길동의 재주를 익히 들어 아는지라, 길동을 잡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했다.

그런데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임금이 대경하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리는데, 여덟 명의 길동이 다투면서 말했다.

“내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기고 즉시 홍야무개를 불러 명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한 자가 없다 했으니, 저 여덟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그것을 자세히 살피시면 진짜 길동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여덟 길동을 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로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홍공은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했다. 임금이 크게 놀라 길내의 약국에 명해 치료하게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여덟 길동이 이를 보고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 입에 넣어드리니, 홍공이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 허균, 「홍길동전(경판본)」 -

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은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했다.
- ② 임금은 길동을 잡기 위해 그의 가족을 이용했다.
- ③ 임금은 홍공에게 진짜 길동을 가려낼 것을 요구했다.
- ④ 임금은 길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하로부터 얻었다.
- ⑤ 인형은 자신의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길동을 위협에 빠뜨렸다.

2. [A]와 [B]에 나타난 '인형'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② [A]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B]는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임금이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 ② ㉡는 길동이 스스로 탐관오리를 처벌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임금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③ ㉢는 길동이 여러 곳에 나타나 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길동의 능력을 부각시킨다.
- ④ ㉠은 인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인형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⑤ ㉢는 인형이 길동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4. ㉠에 담긴 '감사'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수고대(鶴首苦待)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 ③ 견물생심(見物生心)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人生) 백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절벽(千尋絕壁) 섰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벼를 삼아 어조(漁釣)* 생애(生涯) 늙어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보리밥 과 생채(生菜)를 양(量) 맞춰 먹은 후(後)에
모재(慕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웠으니
눈 앞에 태공(太空) 부운(浮雲)*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 곧 설위 하노라.

<제4수>

저 가마귀 짓지 말아 이 가마귀 좃지 말아
야림(野林) 한연(寒烟)*에 날은 초차 저물거늘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없어 하는구나.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배 뗏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 메고 십 리(十里) 장사(長沙) 내려가니
연화(烟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屏山육곡(屏山六曲)」 -

- * 염치: 싫어하지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 어조: 물고기를 낚음.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 낙화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 야림 한연: 들관 숲속의 차가운 안개
-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시대
-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6. 위 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 드러난 ‘망기’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제2수>의 ‘어조 생애’로 실현되고 있군.
- ② <제2수>의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제4수>의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제3수>의 ‘보리밥과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제4수>의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제5수>에서 ‘가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 ⑤ <제6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인 ‘어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제1수>의 ‘빈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 노인은 대구 정거장 앞에서 군밤을 팔며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주인집 아이 돌잔치에서 고기 한 점을 주워 먹다 체해 죽고, 하나 뿐인 아들은 여러 번 죄를 짓고 징역살이를 하다가 근래에는 도망을 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그는 바람 찬 길거리에 나와 군밤을 팔고 앉아 있는 것도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장사가 아니었다. 이자도 없을 송장이라 단 몇 푼이라도 주머니가 비지 않아야…… 하고 죽으려는 준비요 죽기 위한 벌이었다.

이 늙은이가 불도 다 피우기 전이다.

‘만석 아버지’ 하고 그에게로 뛰어와 뒷짐 지고 우뚝 섰는 여남은 되어 보이는 계집애가 하나 있었다.

“밤 많이 구웠수?”

영감은 본 체도 안 하고 불을 붙였다.

그 계집애는 그 영감의 주인집 부엌어멈의 딸로 불도 붙여주는 체하고 밥집질도 까주는 체하다가 부스러진 밤이나, 너무 타서 팔지 못할 것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틈만 있으면 나오는 계집애다.

“만석 아버지?”

“왜 요년이 방정을 떠나 ㉠ ……”

“만석 아버지한테 편지 온 것두 모르고 ㉡ ……”

그 계집애는 우표가 두 장이나 붙고 여기저기 도장 찍힌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글 모르는 이 영감이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내한테 ㉢라니……’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밤 사려는지 손님 하나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미안하외다. 아직 구운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보시우?”

“왜요?”

“수고스럽지만 이것 ㉣ …… 이 편지 피봉 좀 봐주시구려.”

그냥 속두루마기에 방한모에 삼팔 목도리에 노란 구두에, 금테 안경에 이 밤 사러 왔던 젊은 신사는 친절히 편지를 받아들었다.

“황○○가 누구요?”

“그건 내지요.”

“서울서 서일권이란 사람한테서 온 것이구려.”

“서일권이요? 서일권이라 ㉤ …… 아무튼 속두 좀 이거 황송하외지만…… 선심이지니.”

“그러나 이게 영감에게 온 서류 편지니 영감이 뜯으시우.”

영감은 다 낡은 기계와 같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 피봉을 뜯었다. 피봉 속에서는 인찰지 편지 한 장과 불그스름한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이건 10원짜리 돈표요.”

“돈이라뇨?”

“가만 계시우.”

그 친절한 신사는 편지를 다 읽고 아래와 같은 사연을 말해주었다.

“영감의 아들이 한 편진데요, 그동안 무난하구요, 자기는 북간도로 가서 장가도 들고 그곳에 가게도 벌여 영감을 데려가려고 지금 서울 와 있다고요. 그러니 이 돈으로 서울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정거장 대합실에 앉았으면 자기가 찾을 것이니 이 편지 받는 즉시로 서울 오라는 사연이외다.”

영감은 알지 못할 서일권이 자기 아들 만석인 것과 그가 변성명한 이유며, 대구에 오지 못하는 까닭도 우둔한 머리나마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 이 돈은 어디서 찾소?”

“이리 오슈. 요 앞이 우편국이니 내 찾아드리리다. 도장이나 이리 내시우.”

영감은 꿈속과 같았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치에 안 맞을 일은 아니었다. 다만 놀라움이 꿈속과 같이 의심도 일어났다.

‘영감의 아들이……’ 하는 소리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가슴이 심뜩하였으나 그 놀람은 그때뿐이요 우편국을 나설 때는 끝없는 감개에 사무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다.

(중략)

“서울 가요.”

“이번은 용산이요, 그 다음이 서울이니 내립시다.”

황 영감은 깜짝 놀랐다. 벌써 서울을 오다니 하고 깜짝 놀랐다. 대구서 서울까지 오는 일곱 시간을 그는 깜짝 놀라는 그만치 빠르게 가진 것이다. 그가 일곱 시간 동안이나 긴 동안을 밥을 잊고 옷을 잊고 담배까지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행복스러운 일곱 시간 동안은 그가 철난 이후로 10여 년간 한 번도 없는 일이다.

그때에 이 황 영감은 유복한 사람들이 늙지 않는 약을 구하는 욕심도 잘 느껴보았다. 행장은 별로 없으나 담배대도 집어 들고 여태 쓰고 앉았던 남바위도 만적만적하여보았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 첫 번 들어오는 선수가 목을 뒤로 젖히고 두 활개를 퍼들며 달려 들어오듯 먼 길이 끝나는 이 열차도 소리소리 지르며 호기 있게 경성역에 달려들었다.

황 영감도 호기 있게 차를 내려 남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구름다리를 넘어 나와 차표를 내주고 밖으로 나섰다.

이 황 영감이 밖으로 나서자마자 물결치는 사람 속에서 ‘아버지!’하고 미칠 듯이 부르고 만석이가 뛰어 나섰다.

“오!”

“아버지!”

이때다. 이 황 영감이 눈을 씻으며 만석이를 만나보게 되는 즉, 그가 행복된 새 천지에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이 순간이었다.

남모르는 끝끝한 정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을 잡아보기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짝 가로막으며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황 영감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아침 대구에서 편지를 보내주고 돈까지 찾아주던 그 친절한 신사가 틀리지 않았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 독사같이 무서운 낮익은 형사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앗!”

“이놈, 네 애비 손을 잡기 전에 여기다 먼저 손을 넣어.”

“아, 아버지 ㉥ ……”

하고 만석이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의 손은 벌

써 자유롭게 못하였다.

황 영감이 무서운 꿈을 깨듯 눈을 비비며 다시 아들을 찾아 볼 때는 벌써 만석의 그림자는 간 곳이 없었다.

다만 형사에게 묶여 가는 죄인을 구경으로 따라가는 그림자들만 검은 이리 떼와 같이 어물거리며 갔을 뿐이다.

- 이태준, 「행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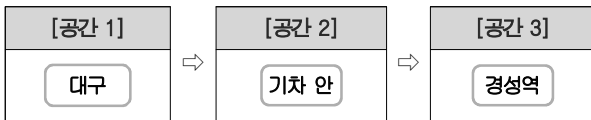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지역적 특성을 가진 소재를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② ㉡: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어렵게 부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낯선 이름에 대해 의아해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 상대방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9.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와 관련하여 **편지**의 기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1]에서 황 영감에게 만석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다.
- ② 황 영감이 [공간 1]에서 [공간 3]으로 이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황 영감으로 하여금 [공간 2]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
- ④ 황 영감이 [공간 2]에서 신사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⑤ 형사가 [공간 3]에서 만석을 잡을 수 있게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이 오오래 정들이고 살다 간 집, 함부로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도꽃도 오얏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다섯 물과, 여섯 바다와, 철이야, 아득한 구름 밖 아득한 하늘가에 나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냐.

[A] 달 밝으면 으레 뜰에 앉아 부는 내 피리의 서른 가락도 너는 못 듣고, 꿀을 헤치며 산에 올라 아침마다, 푸른 봉우리에 올라서면, 어어이 어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별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 흠어졌던 너이 **형 아우** 총총히 돌아오고, 흠어졌던 내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너와 나와 자라난, 막쇠도 돌이도 복술이도 **왔다**.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 비둘기와 꽃다발과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와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 구름, 보오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쁜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늘닐릴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등실 두등실 **봉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덩굴어 보자**.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

1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삽표의 잦은 사용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1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와의 거리에서 오는 '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너'로 인해 떠올린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너'에게 조금씩 다가서면서 느끼는 '나'의 설렘이 나타나 있다.
- ④ '너'에게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 ⑤ '너'와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어서 정든 집으로 귀환(歸還)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그렇게 돌아온 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 ① 1연에서 ‘복사꽃’, ‘살구꽃’, ‘앵도꽃’, ‘오얏꽃’ 등이 ‘피었다고’ 한 것은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② 4연에서 ‘형’, ‘아우’, ‘순이’, ‘누이’ 등이 이미 ‘왔다’고 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데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너’의 귀환을 재촉하는 것이겠군.
- ③ 4연의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과 6연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당굴어 보자’로 보아, 함께 만들어 갈 세계는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겠군.
- ④ 5연의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나라’와 6연의 ‘종달새는 운다’로 보아,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너’의 회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6연의 ‘풀피리나 불고’와 ‘봉새춤 추며’는 ‘너’의 귀환이 이루어진 후 ‘너’와 함께 만들어 갈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기: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고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고는 생각이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닥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오.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 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오. 닥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중략)

금속: 아까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엾잖아요?

회기: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속: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회기: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금속: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회기: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醫)는 인술(仁術)’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니 말야.....

금속: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회기: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 본 수술을 해 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功名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도 못했거든! (하며 담배 연기를 푹푹 뿜는다.)

금속: (약간 당황하며) 전 자세한 얘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회기: 그리고?

금속: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회기: ㉢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미스 정은 정말 지레 짐

작도 잘 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금숙: (무안해지며) 예?

회기: 결혼과 의학과 무슨 상관있어. 내가 서른다섯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금숙: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째서.....

회기: ㉔ (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듯)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금숙: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회기: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금숙: (수줍음을 감추며)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회기: (멀거니 금숙을 쳐다보며)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금숙: ㉕ (당황하며) 예? 저야..... 뭐.....

회기: 스물여덟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금숙: (동요되는 마음을 저지하려고 무척 애쓰며)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회기: 생각?

금숙: (나지막하나 또렷하게)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 차범석, 「성난 기계」-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어 버린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여 그러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①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공장은 이들을 둘러싼 비정한 현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②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기’에게 기계와 같다고 말하는 ‘인옥’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니게 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③ 의사로서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 못했다는 ‘회기’의 말에서 비정한 현실의 영향이 그의 의식에까지 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인옥’과 ‘금숙’을 대하는 ‘회기’의 태도는 그가 비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인옥’의 처지를 생각하는 ‘금숙’의 말이나 ‘회기’에 대한 ‘금숙’의 태도에서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44. ㉔~㉕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회기’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게 말하세요.
- ② ㉕: ‘인옥’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것이 느껴지게 연기하세요.
- ③ ㉔: ‘금숙’의 말에 만족하여 침울했던 마음이 풀린 듯이 연기하세요.
- ④ ㉔: 대사의 내용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말하세요.
- ⑤ ㉕: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세요.

빠른정답.

5	2	4	1	3
4	2	5	4	3
1	4	3	2	

[1~4] (고전소설) 허균, 『홍길동전(경판본)』

1.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인형은 임금의 명령에 의해 길동을 잡으려 한 것이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길동을 잡으려 한 것은 아니다.

① 길동이 부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여덟 명의 길동이 나타나자 임금이 홍공에게 진짜 길동을 가려내라고 명령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한 신하가 임금에게 홍길동이 홍공의 서자이며, 인형의 서제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는 아버지인 홍공의 병이 심해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라 말하며 임금의 동정심을 유발했고, [B]에서는 ‘충’, ‘효’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내세워 길동을 설득하고 있다.

③ [A]와 [B]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인형은 임금에게 홍공을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있으므로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인형이 길동을 잡기 위해 ㉔를 붙인 것은 맞지만, ㉔가 인형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

② ㉔는 길동 자신이 탐관오리를 처벌했다는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공문으로 임금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⑤ ㉔는 인형이 길동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공문이다.

4.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의미 파악하기

‘학수고대(鶴首苦待)’는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으로,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감사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적절하다.

②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③ ‘견물생심(見物生心)’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비분강개(悲憤慷慨)’는 슬프고 분해서 의분(義憤)이 북받친다는 뜻이다.

[5~6] (고전시가)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화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공간인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① 제1수의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

(厭)치 말아’, 제5수의 ‘저 가마귀 짓지 말아 이 가마귀 좃지 말아’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 ‘공산’, ‘달’, ‘두견’, ‘낙화’, ‘백조’ 등의 자연물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4수의 ‘두견’은 의지할 곳 없는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백조’는 한스럽고 서러운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소재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제4수의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제6수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배 뗏단 말가’ 등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기

<제4수>에서 화자가 ‘두견’을 부를 때의 심리는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두견’에 대한 동일시와 연민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5수>에서 화자는 ‘가마귀’에 대해 ‘짓지’ 말고 ‘좃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가마귀’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와 ‘가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유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망기(忘機)’하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2수>의 ‘어조 생애’는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백구’와 벗하며 ‘세간 소식’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속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으로, ‘망기’에 대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라고 하여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4수>의 ‘낙화광풍’은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제3수>의 ‘보리밥’과 ‘과 생채’는 소박한 음식으로, 이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은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리밥 과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라고 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인 ‘무릉’으로 인식할 정도로 현재의 공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즉 ‘부귀’와는 동떨어진 ‘어촌’에서의 ‘빈천’한 삶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자의 만족감은 <제1수>에서 화자가 ‘빈천’에 대해 ‘염(厭)치 말아’라고 말함으로써, ‘빈천’을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9] (현대소설) 이태준, 『행복』

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황 영감은 아들의 편지를 받은 뒤, 아들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아들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의해 그 꿈이 깨지게 된다. 그러므로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 및 심리 파악하기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형사에게 잡혀가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에 아버지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에는 편지를 전해주려는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에는 손님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황 영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편지를 받은 후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황 영감은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편지가 '황 영감이 [공간 2]에서 신사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12] (현대시)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이 시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기쁨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산문시이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어서 정든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10.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시에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는 겹표의 잦은 사용으로 시의 호흡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② '충충히', '닐닐닐', '두둥실' 등 의태어와 의성어가 많이 사용되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등과 같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다고 일러라', '~돌아오고' 등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11. [출제의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 기능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득한', '너는 못 듣고' 등을 통해 '너'와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알 수 있으며,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냐', '어어이 어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등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12. [출제의도]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의 맥락에서 시를 감상할 때, '눈물'과 '피'는 흩어져 지내던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며, '푸른 빛 깃발'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종달새는 운다'는 새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징표로 역시 희망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구를 근거로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14] (회곡) 차범석, 「성난 기계」

이 작품은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사실주의 단막극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실에 종속된 인간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말부에서 주인공의 태도에 반전이 일어나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한다.

'회기'가 ㉠에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금숙'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자신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인옥'은 '회기'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회기'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회기'를 기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어린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아 비정한 의식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없다.